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9월 생산은 전월대비 0.6% 감소(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3.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늘었으나, 1차금속, 반도체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8%).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 등에서 늘었으나,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전년동월대비 +5.6%).

◆ 2022년 9월 소비는 전월대비 1.8%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2.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5.8%)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0%), 의복 등 준내구재(-3.7%)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7%).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1.5%) 투자가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6%)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2.4% 감소함(전년동월대비 +12.5%).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보합,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20.4%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9	2020	2021	2020				2021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	9월	8월p	9월p
생산	전산업	1.0	-1.1	4.9	-1.5	-2.9	2.9	1.3	1.7	0.6	0.9	1.5	0.3	-0.1(4.8)	-0.6(3.1)
	광공업	0.4	-0.3	7.4	-0.5	-6.0	5.7	2.6	3.7	-0.6	1.0	1.1	-2.5	-1.4(1.5)	-1.8(0.8)
	제조업	0.5	-0.2	7.6	-0.5	-6.4	6.2	2.5	3.9	-0.7	0.9	1.3	-2.7	-1.2(1.4)	-1.8(0.8)
	건설업	-2.3	-2.1	-6.7	1.7	-2.3	-2.5	1.3	-5.2	-1.9	-1.1	4.1	1.0	3.8(6.1)	0.0(3.9)
	서비스업	1.4	-2.0	4.4	-2.9	-1.5	2.2	0.9	0.6	1.7	1.1	1.5	1.0	1.8(7.4)	-0.3(5.6)
소비	소비재 판매	2.4	-0.2	5.9	-5.9	5.3	-0.4	1.1	1.7	2.2	0.8	1.1	1.1	4.4(2.4)	-1.8(-0.7)
투자	설비투자	-5.6	5.9	9.6	-2.0	2.5	2.9	1.4	6.0	0.7	-0.8	-0.2	-3.0	10.7(13.9)	-2.4(12.5)
물가		0.4	0.5	2.5	0.3	-0.5	0.6	0.0	1.3	0.5	0.7	1.0	0.2	0.3(5.6)	0.3(5.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1년 10월, 2022년 9월, 2022년 10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1% 상승)

○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함(전년동월대비 5.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2.0%), 음식·숙박(0.3%), 보건(0.5%), 기타 상품·서비스(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0.5%), 통신(0.4%), 의류·신발(0.2%), 오락·문화(0.1%), 주류·담배(0.1%)는 상승, 교육은 변동 없으며, 교통(-0.5%), 식료품·비주류음료(-1.3%)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8% 하락,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함.

●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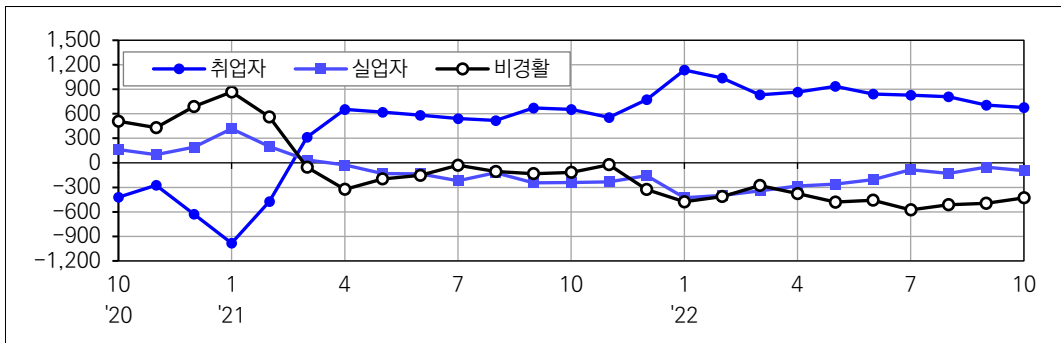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소폭 감소

○ 2022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5천 명 감소).

- (산업별)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은 증가로 전환됨. 서비스업은 음식숙박 및 교육서비스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운수창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도소매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 (연령별) 10월은 30대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30대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운수창고 및 공공행정 등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50대는 금융보험 및 전문과학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10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제조업, 도소매, 전문과학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일용직은 협회단체에서 증가로 전환됨.
- (일시휴직자) 10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9월 6만 3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만 3천 명 감소함.
- (실업자) 10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9월 -5만 2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5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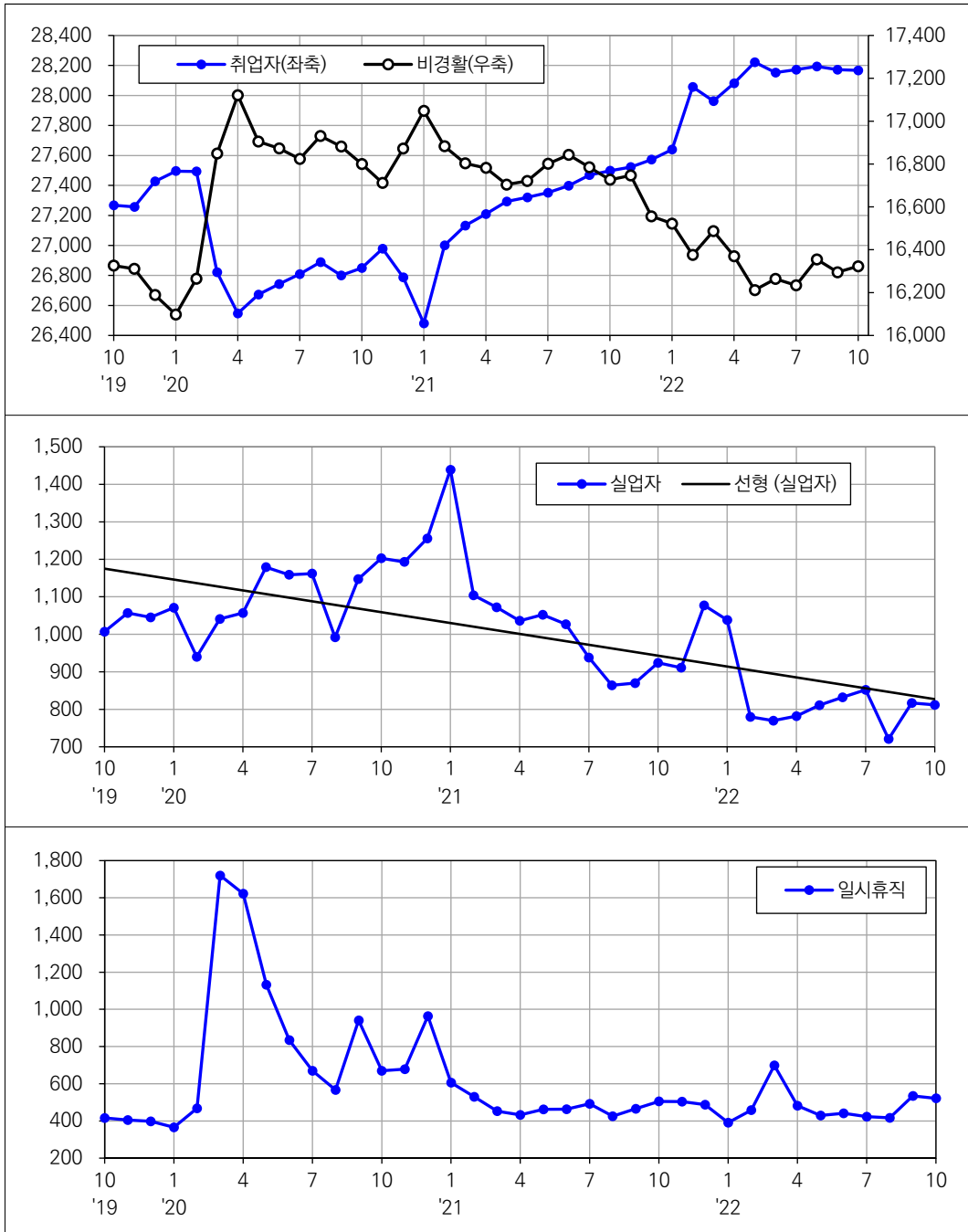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0월 취업자는 30대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실업자는 20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30대에서 감소로 전환됨.

- 전년동월대비 20대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30대는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운수창고,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금융보험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50대는 금융보험 및 전문과학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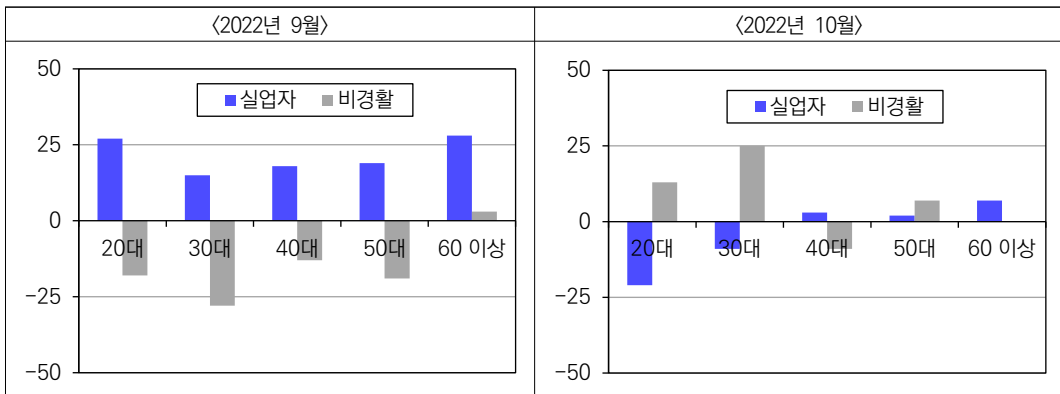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16	-4	-7	(-7)	65	20	28	(-5)	98	91	61	(-20)
실업자	-3	-6	-3	(-2)	-11	41	5	(-21)	-13	5	-13	(-9)
비경황	-68	-40	-34	(9)	-209	-218	-193	(13)	-206	-214	-161	(25)
실업률	-1.9	-3.2	-1.8	(-0.7)	-0.4	0.9	0.0	(-0.5)	-0.2	0.1	-0.3	(-0.2)
고용률	0.9	0.0	-0.1	(-0.3)	2.5	1.8	2.0	(0.0)	2.7	2.7	2.1	(-0.3)
	40대				50대				60세 이상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8월	9월	10월	(전월비)
취업자	-8	-17	-11	(-2)	182	166	147	(-8)	454	451	460	(37)
실업자	-16	-10	-18	(3)	-38	-47	-39	(2)	-48	-36	-28	(7)
비경황	-56	-58	-60	(-9)	-107	-87	-83	(7)	135	123	103	(0)
실업률	-0.2	-0.1	-0.3	(0.0)	-0.6	-0.7	-0.6	(0.1)	-0.9	-0.8	-0.5	(0.1)
고용률	0.6	0.6	0.7	(0.1)	1.8	1.7	1.5	(-0.1)	1.6	1.6	1.6	(0.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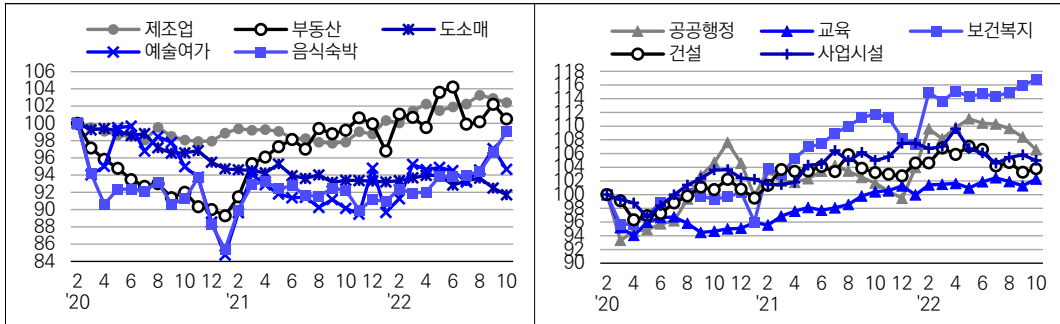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동산, 예술여가, 도소매, 공공행정, 사업시설이 감소함. 반면 음식숙박, 보건복지, 건설 및 교육은 개선됨.
- 도소매, 예술여가, 음식숙박은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유지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90	84	47	2	-8	-20	-26	-1.7
광업	-6	-4	-5	-2	1	-1	-2	-22.2
제조업	240	227	201	45	-17	-21	7	0.2
전기·가스·증기	12	12	7	0	4	-3	1	1.7
수도·원료재생	-26	-32	-23	0	-3	4	1	0.6
건설업	-22	-12	12	10	-29	10	-8	-0.4
도매 및 소매업	-14	-24	-60	11	-41	-28	-58	-1.7
운수 및 창고업	75	26	5	-22	-16	-11	-49	-2.9
숙박 및 음식점업	67	94	153	12	50	54	116	5.4
정보통신업	72	62	60	-3	3	-4	-4	-0.4
금융 및 보험업	-12	-24	-15	1	-18	12	-6	-0.7
부동산업	4	19	7	2	11	-9	3	0.6
전문·과학·기술	80	65	56	-9	-3	1	-11	-0.8
사업시설관리지원	6	-5	0	12	5	-11	5	0.4
공공행정·사회보장	71	69	58	-7	-14	-21	-42	-3.4
교육서비스업	62	27	34	-10	-11	18	-3	-0.2
보건 및 사회복지	123	117	121	17	24	18	59	2.2
예술·스포츠·여가	23	31	23	7	13	-12	8	1.6
협회·단체·수리·기타	-39	-25	-7	-10	17	3	10	0.9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4	-2	-2	-5	3	-3	-5	-5.8
국제 및 외국기관	5	3	5	1	-1	1	1	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2년 10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감소폭이 축소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상용직은 제조업, 도소매, 전문과학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임시직은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협회단체에서 증가로 전환됨.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및 도소매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제조업 및 도소매에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건설업에서 증가로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907	816	738	13	-18	2	-4	0.0
임시직	-78	-120	-85	-9	-4	-33	-46	-1.0
일용직	-97	-114	-80	24	-56	0	-32	-2.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3	96	67	-11	38	-13	14	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8	87	99	21	-9	33	45	1.1
무급가족종사자	-65	-59	-61	-7	-7	4	-10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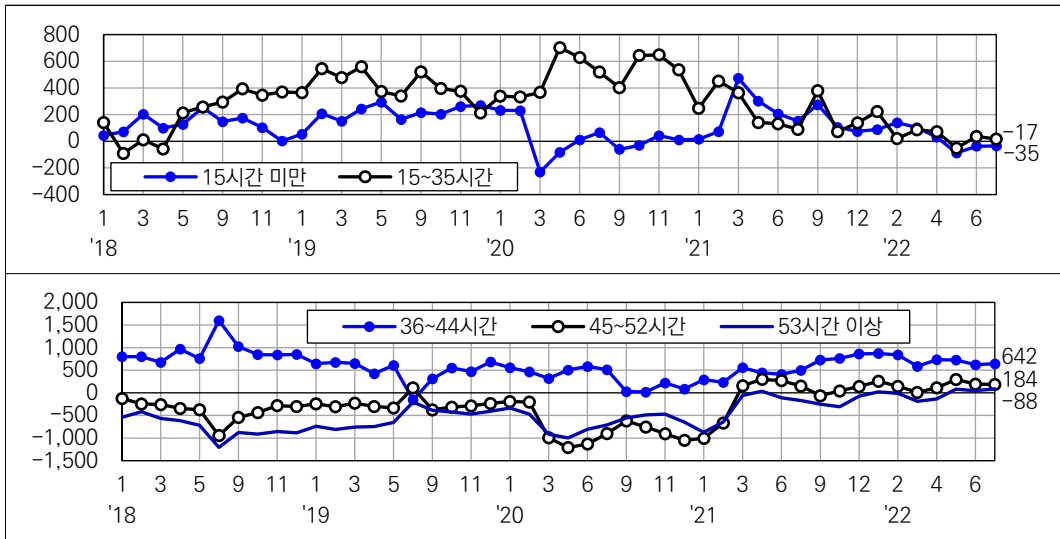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8월	9월	10월
농림어업	1	1	2	1	1	-5	-10	-9	-11	7	-3	-7	84	88	74
제조업	240	233	211	33	24	23	-10	-20	-23	19	26	16	-29	-29	-23
건설업	31	23	39	31	17	17	-63	-54	-49	11	20	14	-18	-6	2
도소매	101	69	40	-42	-16	-14	-10	-14	-8	5	23	1	-31	-45	-32
운수창고	22	4	-5	-4	-22	-31	6	-3	-3	4	8	5	45	40	38
음식숙박	69	72	84	21	29	59	-2	2	7	4	16	16	-23	-28	-24
정보통신	80	65	57	-10	-8	-7	-5	-5	-5	0	-2	2	6	11	12
금융보험	-24	-17	-24	-1	-18	-5	3	3	3	5	4	5	5	3	6
부동산	-4	-5	-6	3	11	4	-1	0	-3	4	3	5	0	10	7
전문과학기술	87	65	43	-27	-15	-9	1	-1	4	4	6	7	17	11	12
사업관리지원	-8	-19	-9	2	4	-9	-6	-4	-4	-1	1	1	15	11	16
공공행정	95	109	97	-23	-36	-38	-1	-4	-1	-	-	-	-	-	-
교육서비스	61	49	44	-28	-47	-25	6	6	5	1	3	0	28	22	16
보건복지	158	162	157	-36	-43	-42	0	1	2	-1	-3	2	4	2	3
예술스포츠	-10	-4	-11	8	6	9	-2	1	1	0	3	5	24	22	16
협회단체	28	28	34	-8	-5	-13	0	-6	7	-11	-7	-3	-42	-32	-28
가구 내 고용	-2	-2	-3	-3	-1	1	0	-3	-3	-	-	-	1	3	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0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5.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 감소함.
 - 이는 2022년 10월 조사기간 중에 대체공휴일(한글날)이 포함된 영향 때문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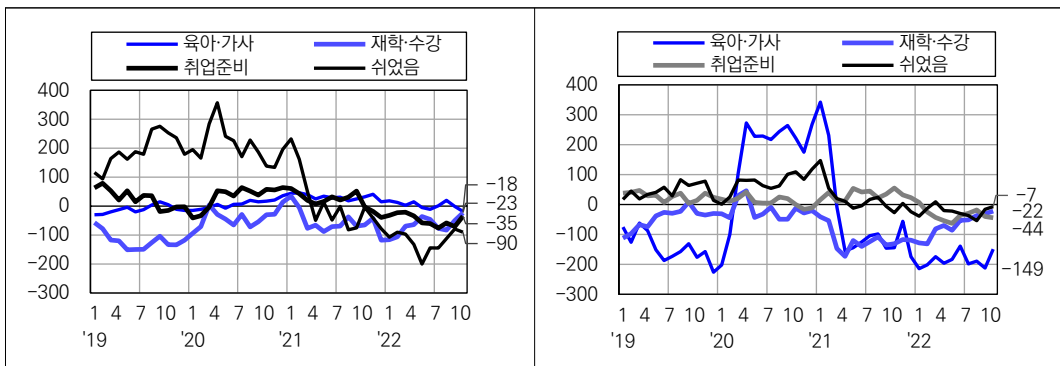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0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 8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9월 -49만 5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20만 8천 명으로 재학·수강 및 취업준비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여성은 -22만 명으로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축소됨.

[그림 6]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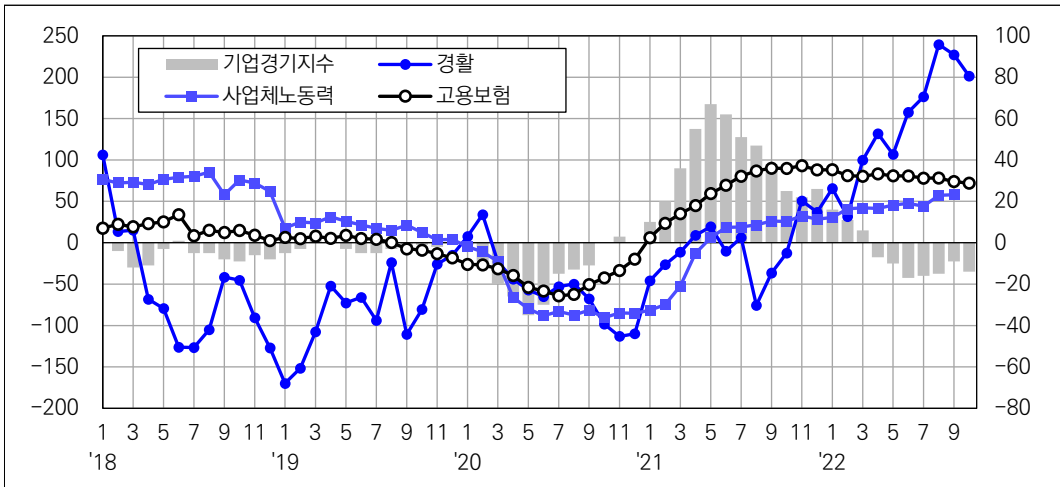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 확대

○ 2022년 10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을 유지함. 피보험자는 주로 전기장비, 기계장비, 식료품 및 자동차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2만 1천 명 감소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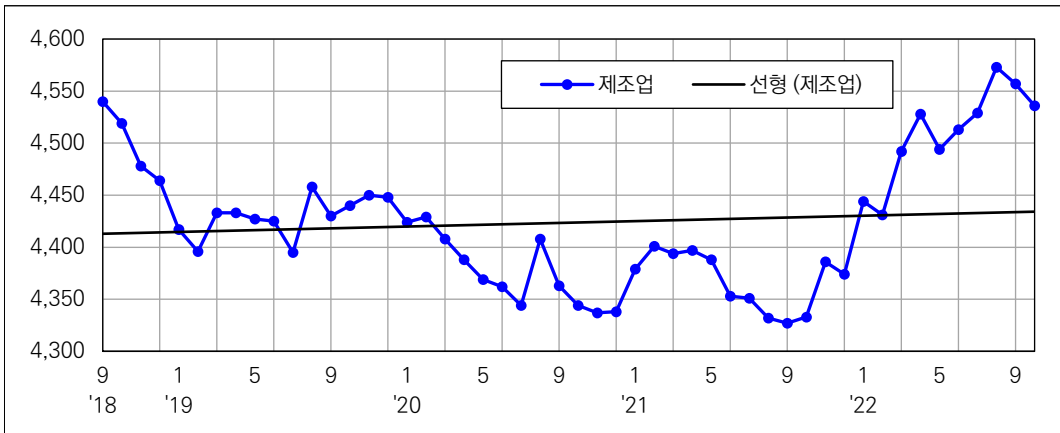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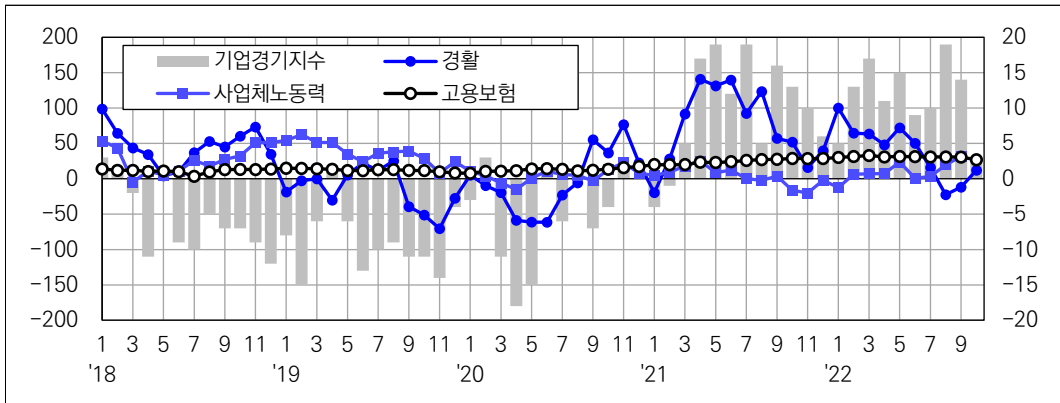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2년 10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로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되고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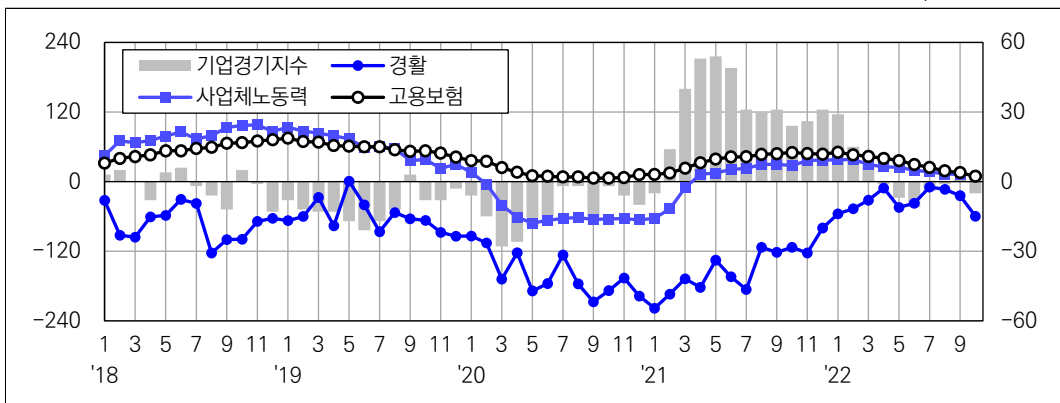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2년 10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1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도소매) 경찰 취업자 감소폭은 확대됨.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임.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 그 외 고용지표는 큰 변동 없음.
 - (음식숙박)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고 생산지수 및 그 외 고용지표도 증가함.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된 반면 그 외 고용지표는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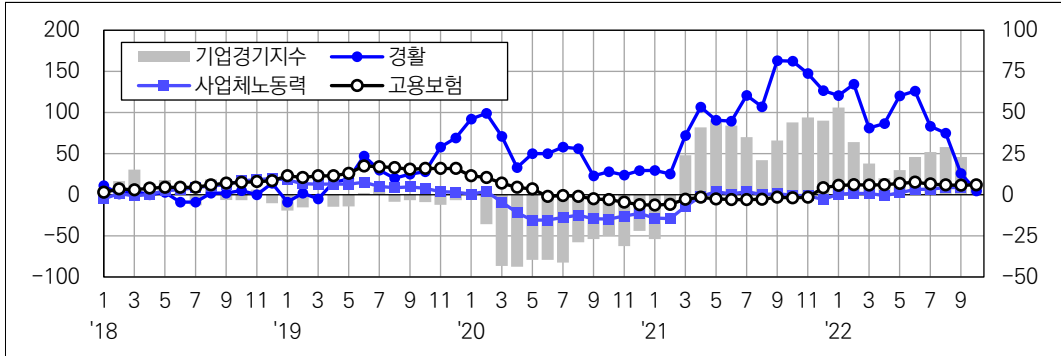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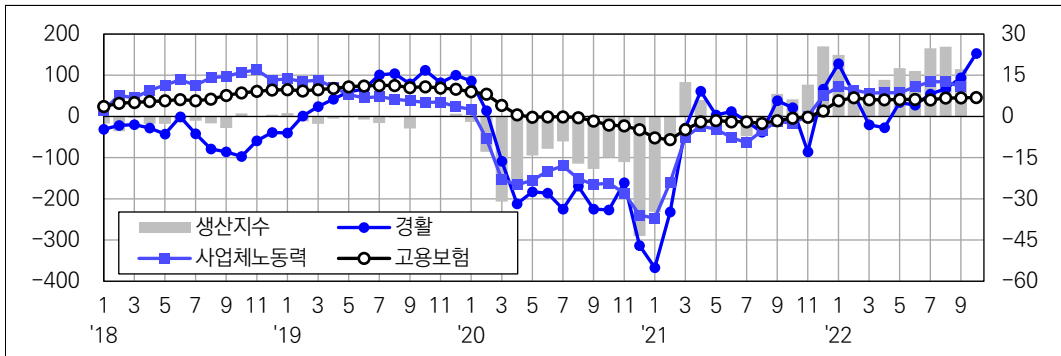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2]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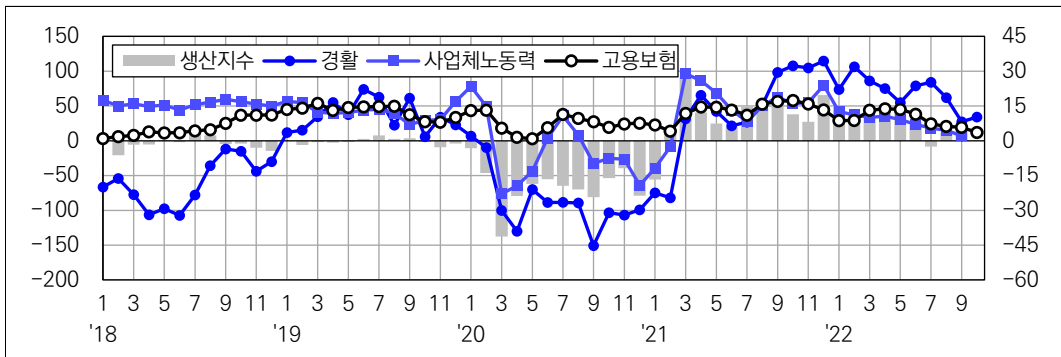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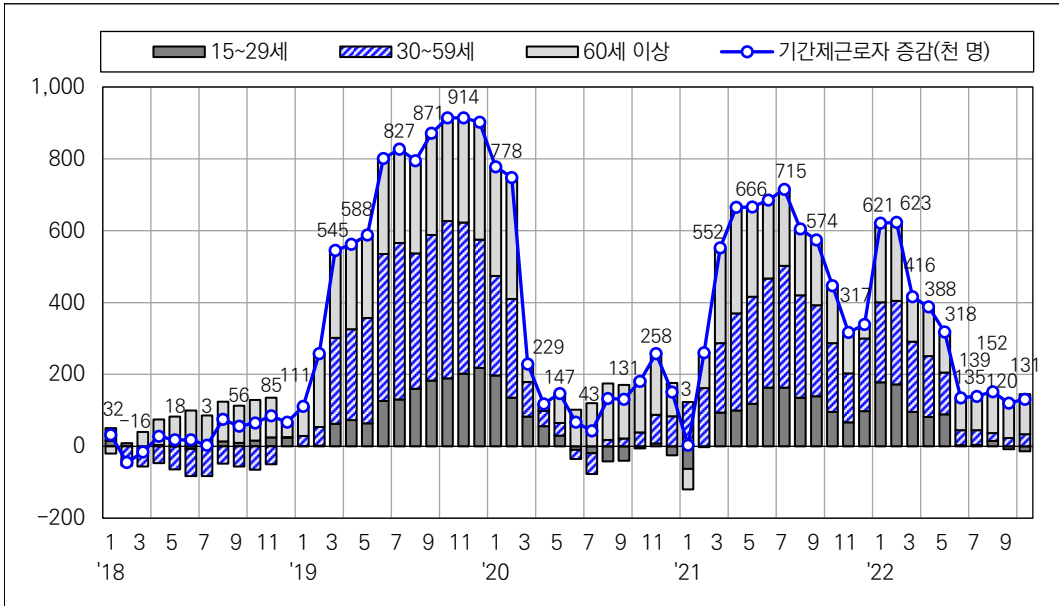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2년 10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3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30세 이상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8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2022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0만 2천 원(5.1%)임.
 - 2022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1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1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정액급여 증가폭의 확대에서 기인함. 정액급여 증가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1%), 운수 및 창고업(6.5%), 도매 및 소매업(6.2%) 등이었으며, 제조업도 정액급여 평균상승률(4.6%)을 상회하는 5.0%로 나타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함.
 - 1~8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0.5%로 1.8%p 하락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8월	8월	1~8월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639 (4.4)	3,521 (4.2)	3,837 (5.4)	3,702 (5.1)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3,836 (4.6)	3,713 (4.4)	4,057 (5.8)	3,917 (5.5)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161 (3.2)	3,160 (3.4)	3,295 (4.2)	3,306 (4.6)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4 (4.7)	207 (4.1)	217 (5.9)	217 (5.2)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471 (14.8)	346 (14.0)	546 (16.0)	394 (13.9)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689 (4.2)	1,678 (3.2)	1,736 (2.8)	1,719 (2.4)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2.8 (2.1)	102.8 (2.6)	108.6 (5.0)	108.6 (5.7)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2.3	1.6	0.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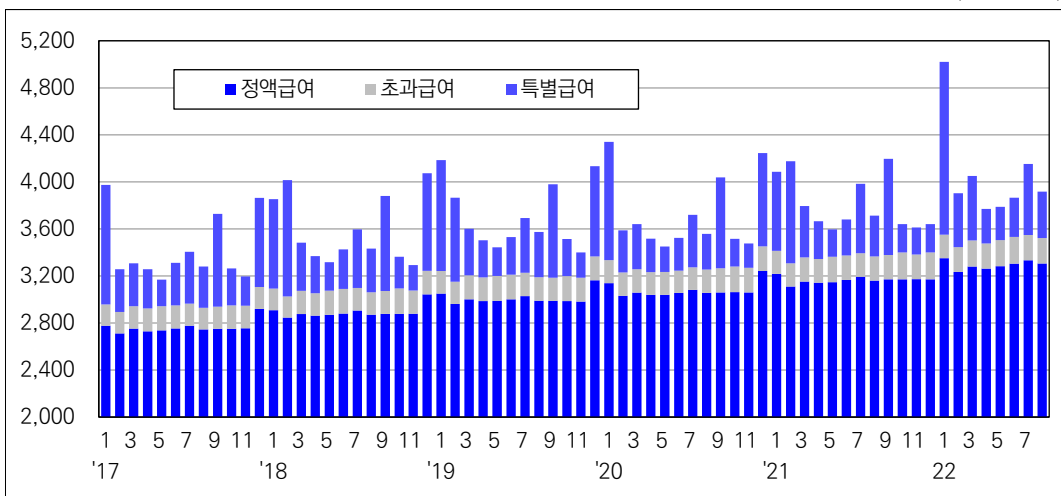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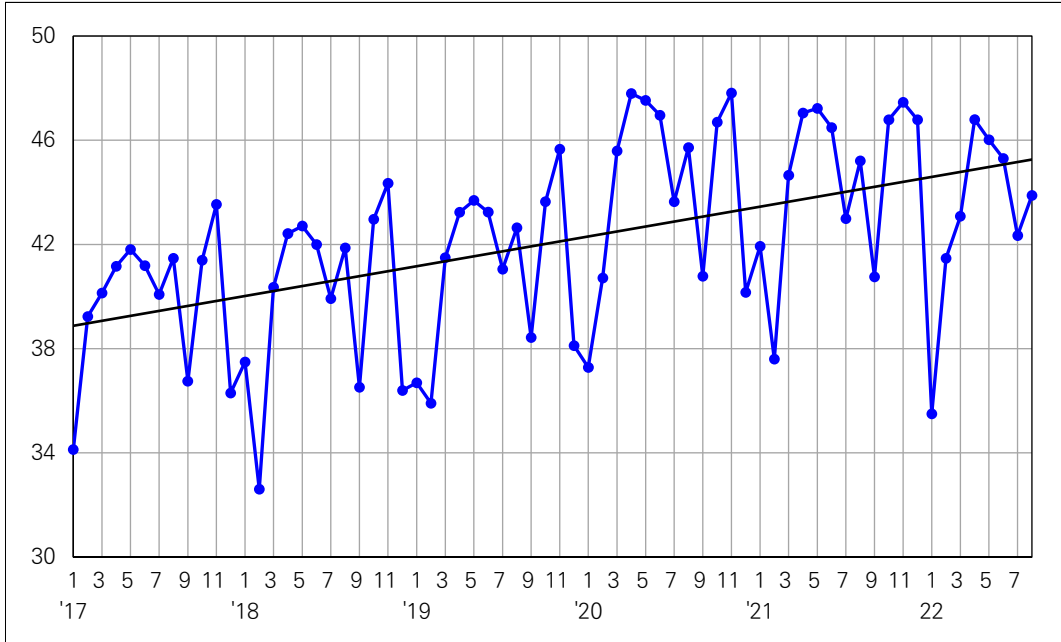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8월 중소기업 임금증가폭 확대

- 2022년 8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5.9%, 2.7% 증가함.
 - 중소기업(1~299인)·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3%, 2.9% 증가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1%, 4.9% 증가함.
 - 명절시기 변경으로 분산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임금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증가한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1~8월 평균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7%, 7.6%로 전년동기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전반적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270 (3.7)	3,197 (3.7)	3,422 (4.7)	3,384 (5.9)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457 (3.8)	3,381 (3.9)	3,628 (5.0)	3,595 (6.3)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95 (3.2)	2,998 (3.3)	3,119 (4.2)	3,132 (4.5)
	초과급여	171 (-2.4)	176 (2.9)	173 (4.1)	174 (3.4)	183 (5.9)	183 (5.2)
	특별급여	292 (-9.4)	322 (10.4)	289 (10.9)	209 (13.0)	326 (12.7)	280 (33.9)
	비상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61 (3.8)	1,653 (2.6)	1,700 (2.3)	1,688 (2.1)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513 (6.2)	5,169 (5.5)	5,935 (7.6)	5,306 (2.7)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5,612 (6.3)	5,265 (5.6)	6,059 (8.0)	5,417 (2.9)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39 (3.0)	3,919 (3.6)	4,113 (4.4)	4,115 (5.0)
	초과급여	340 (1.4)	357 (5.1)	352 (5.4)	360 (5.5)	372 (5.7)	378 (4.9)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322 (17.8)	987 (14.4)	1,575 (19.1)	923 (-6.4)
	비상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188 (9.2)	2,116 (10.2)	2,314 (5.8)	2,21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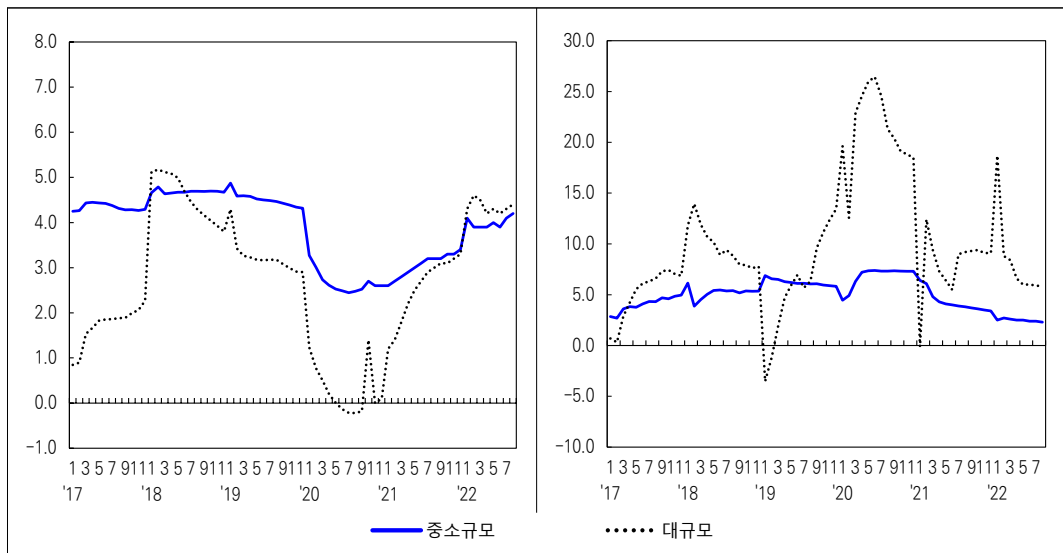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8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9.2%), 금융 및 보험업(7.3%), 숙박 및 음식점업(7.2%) 부문으로 7~9%대 임금상승률을 보인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7%), 광업(2.7%) 부문의 임금상승률은 평균상승률(5.1%)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8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66만 1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9만 2천 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24만 6천 원) 순인 가운데,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1만 5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3,527	3,689 (4.6)	3,639 (4.4)	3,521 (4.2)	3,837 (5.4)	3,702 (5.1)
광업	4,325	4,415 (2.1)	4,395 (2.3)	4,213 (5.6)	4,585 (4.3)	4,327 (2.7)
제조업	3,990	4,239 (6.2)	4,159 (6.1)	3,949 (4.8)	4,450 (7.0)	4,132 (4.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 (0.3)	6,331 (1.1)	5,286 (3.5)	6,486 (2.4)	5,392 (2.0)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 (5.3)	3,929 (4.8)	3,816 (3.4)	4,034 (2.7)	3,994 (4.7)
건설업	3,032	3,106 (2.4)	3,069 (1.6)	3,045 (3.7)	3,201 (4.3)	3,194 (4.9)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 (3.7)	3,506 (3.8)	3,441 (4.7)	3,708 (5.7)	3,642 (5.8)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 (7.5)	3,695 (5.9)	3,578 (4.1)	3,924 (6.2)	3,907 (9.2)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 (1.4)	1,882 (0.4)	1,879 (0.1)	1,988 (5.6)	2,015 (7.2)
정보통신업	4,613	4,796 (4.0)	4,800 (4.1)	4,481 (3.8)	4,994 (4.0)	4,672 (4.3)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 (6.7)	6,951 (7.4)	6,206 (1.3)	7,362 (5.9)	6,661 (7.3)
부동산업	2,848	2,954 (3.7)	2,922 (2.9)	2,809 (2.6)	3,091 (5.8)	2,984 (6.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 (4.8)	5,020 (4.6)	5,106 (7.4)	5,324 (6.1)	5,246 (2.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 (3.4)	2,461 (3.4)	2,430 (3.6)	2,559 (4.0)	2,518 (3.6)
교육서비스업	3,366	3,355 (-0.3)	3,379 (-0.6)	3,221 (-0.5)	3,458 (2.3)	3,373 (4.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 (2.5)	2,975 (2.1)	2,941 (2.7)	3,101 (4.2)	3,140 (6.8)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 (4.2)	2,958 (3.9)	2,923 (7.5)	3,041 (2.8)	3,090 (5.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 (5.4)	2,672 (5.8)	2,675 (6.2)	2,802 (4.8)	2,757 (3.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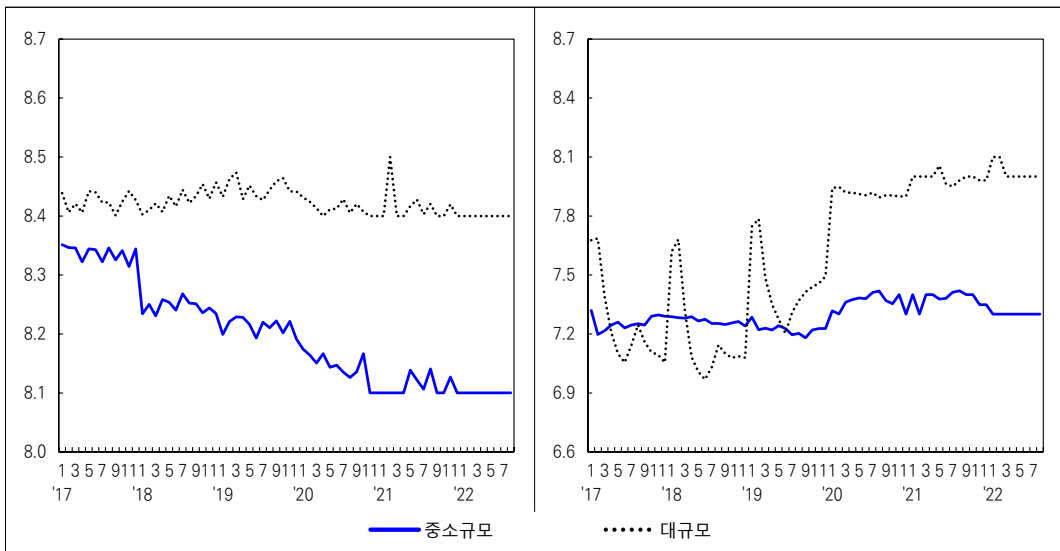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8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2.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2022년 8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69.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5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8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의 증가 영향이 큼.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임.
- 2022년 1~8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8시간 감소함.
 - 2022년 1~8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2일 감소한 것과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진자 급증 등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줌.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8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62.6시간, 16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5시간, 4.8시간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8월	8월	1~8월	8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60.3(0.1)	159.1(3.4)	157.7(-1.6)	162.6(2.2)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7.7(0.2)	166.3(3.5)	165.0(-1.6)	170.7(2.6)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60.0(0.1)	158.7(3.8)	157.3(-1.7)	163.1(2.8)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7(1.3)	7.6(-1.3)	7.7(0.0)	7.6(0.0)
	비상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7.2(1.6)	98.0(1.7)	96.6(-0.6)	97.6(-0.4)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3.2(0.2)	159.8(3.6)	159.7(-2.1)	164.6(3.0)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4.2(0.2)	160.7(3.6)	160.9(-2.0)	165.7(3.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3.2(0.0)	149.5(3.7)	149.9(-2.2)	154.7(3.5)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1.0(1.9)	11.2(0.9)	11.0(0.0)	11.0(-1.8)
	비상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9.3(2.4)	132.7(7.3)	125.5(-2.9)	133.0(0.2)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8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2년 8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8.5 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업(178.3시간), 부동산업(176.3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8.6시간)이었음.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8월	8월	1~8월	8월
전 산업	160.6	160.7(0.1)	160.8(0.1)	159.2(3.4)	158.0(-1.7)	162.9(2.3)
광업	181.2	179.9(-0.7)	180.5(0.4)	175.3(-0.6)	174.6(-3.3)	178.3(1.7)
제조업	172.7	173.5(0.5)	173.7(1.2)	166.5(3.9)	170.0(-2.1)	169.7(1.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2.5(-0.9)	160.1(-1.4)	157.5(-3.1)	152.3(-4.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6.7(0.1)	176.1(2.4)	174.2(-1.4)	178.5(1.4)
건설업	136.9	135.9(-0.7)	135.9(-1.2)	136.0(2.6)	134.3(-1.2)	138.6(1.9)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4.0(0.1)	163.5(3.4)	161.7(-1.4)	168.3(2.9)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60.1(0.6)	161.0(3.9)	159.6(-0.3)	166.3(3.3)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7.5(-2.1)	150.7(-0.1)	146.1(-0.9)	153.0(1.5)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4.6(0.2)	165.4(5.4)	162.3(-1.4)	170.9(3.3)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62.7(0.0)	161.1(4.7)	159.1(-2.2)	167.9(4.2)
부동산업	173.2	171.8(-0.8)	171.8(-0.8)	172.0(1.7)	168.7(-1.8)	176.3(2.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2.2(-0.3)	160.2(4.0)	159.7(-1.5)	166.1(3.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62.4(0.4)	162.6(3.7)	159.3(-1.9)	165.9(2.0)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7.3(0.4)	138.3(4.4)	135.3(-1.5)	142.5(3.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8.1(-0.3)	158.2(3.3)	154.7(-2.2)	161.2(1.9)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2.7(1.1)	156.1(3.9)	150.5(-1.4)	158.0(1.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2.3(1.4)	162.6(3.6)	159.7(-1.6)	166.0(2.1)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1건
 -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6건)보다 2건 많은 수치임.
- 2022년 10월 조정성립률 65.0%
 - 10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38.1%보다 26.9%p 높은 수치임.

〈표 1〉 2021년, 2022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2. 10	18	22	13	4	9	7	1	6	0	2	7	65.0%
2021. 10	16	26	8	2	6	13	3	10	0	5	3	38.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10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4건임.

〈표 2〉 2021년, 2022년 10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2. 10.	1	1	1	0	0	4
2021. 10.	0	0	0	0	0	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68건
 - 10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39건)보다 29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7.0%(47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3.0%(127건)를 차지함.

〈표 3〉 2021년, 2022년 10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10	168	174	39	8	89	5	15	18	460
2021. 10	139	182	42	3	85	15	20	17	47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5건
 - 10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건)과 같음.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100.0%(2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2년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2. 10	4	2	0	0	2	0	0	0	8
2021. 10	4	11	1	0	5	3	2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2022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²⁾에 접수된 총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649건
 - 9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476건)보다 173건 많은 수치임.
 - 9월 복수노조사건 처리 건수(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 무)는 전년 동월(476건)보다 150건 많은 수치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2) 〈표 5〉의 접수건수는 이월사건이 포함된 건수임.

〈표 5〉 2021년, 2022년 9월 복수노조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계	교섭요구 공고	교섭대표 결정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 의무
2021	787	724	158	247	106	213
2021. 9	649	567	117	205	84	161
2022. 9	476	417	90	109	68	15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매월 『노동위원회 소식지』.

◆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 11월 3일 민주노총 화섬노조와 파리크라상 자회사 PB파트너즈는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음.
- 노사는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황재복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하기로 하고, 관련자들은 인사조치하기로 했고 정례적인 노사간담회를 열기로 하였음.
- 이 외에도 합의문에는 △조합 선택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 △보건·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점포 내 방송시스템을 통해 점심시간을 알리고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모든 고소·고발·진정을 취하하고 시위 천막 등을 철거할 것 등이 담겼음.

◆ 쿠팡이츠 라이더 3천 명 파업

- 10월 18일 라이더들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은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파업행진 시위를 벌였음.
- 노조는 쿠팡이츠를 상대로 △기본배달료 2,500원→4,000원 인상 △거리 할증 △명절 상여금 15만 원(1년 2회) 및 보험료 지원 △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상설협의 기구 단체협약에 명시 △라이더 소득, 노동시간, 사고데이터 등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음.
- 쿠팡이츠는 2021년 3월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기본 배달 수수료를 3,1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했음. 배달 기피를 방지하고자 기본 수수료를 낮춰 장거리 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음.
- 또한 쿠팡이츠는 지난 2020년 11월까지인 기본거리 초과 시 100미터당 1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는 '실시간 할증 정책'을 고지했지만, 기본요금 인하 후 구체적인 할증 정책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식품 혼합기 사고로 5년간 노동자 305명 사상

- 10월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 혼합기 같은 식품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고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6명이고 부상을 입은 경우는 299명이었음.
- 부상자 299명 중 190명(63.5%)은 사고 후 9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음.
- 위중한 재해를 당한 노동자 190명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53명(80.5%)은 50명 미만 중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였음.

〈표 6〉 식품가공용 기계 등 재해현황(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 통계)

(단위: 명)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305	53	63	63	54	72
사고부상	299	51	61	62	53	72
사고사망(제조업)	5	2	2	-	1	-
사고사망(농업)	1	-	-	1	-	-

주: 부상자 299명 중 190명(63.5%)은 90일 이상 휴업, △ 끼임 183명(96.3%) △ 절단·베임·찔림·부딪힘 7명.
 자료: 고용노동부.

◆ 5대 고위험 업종서 발생한 중대재해 1위는 ‘끼임’ 사망 사고

- 10월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 플라스틱·식료품·자동차 신품 부품·종이제품 제조업과 인쇄업 등 5개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자가 128명 발생했음.
- ‘끼임’으로 54명, ‘떨어짐’으로 19명이 사망했음.
- 끼임과 떨어짐 사고는 5개 업종에서 모두 발생했고, ‘칼림·뒤집힘’ 11명, ‘물체에 맞음’ 7명, ‘폭발·파열’ 6명 순이었음.
- 5년 동안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플라스틱 제조업(47명)이었고, 식료품 제조업(45명), 자동차 부품품 제조업(23명), 종이제품 제조업(8명), 인쇄업(5명)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극단적 선택 생각한 소방관 4,967명

- 11월 17일 소방청이 공개한 '2022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소방관 중 '극단적 선택 생각을 1회 이상 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2%(4,967명)였고 2021년(8%·4,319명)보다 증가했음.
- 자살 고위험군은 5.4%(2,906명)로 파악됐음.
- 수면장애는 지난해(22.8%, 1만 2,310명)보다 7%포인트 늘어난 29.8%(1만 6,108명)였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한 소방공무원도 2021년 5.7%(3,093명)에서 2022년 8.1%(4,364명)로 늘어났음.
- 우울감을 느꼈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은 2021년 4.4%(2,379명)에서 2022년 7.6%(4,129명)로 증가했음. '문제성 음주'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은 26.2%(1만 4,149명)였음. 2021년(1만 2,271명·22.7%)보다 2,000명가량 늘었음.
-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스트레스 혹은 트라우마를 겪은 소방공무원 중 고위험군도 2배가량 늘었음. 코로나19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트라우마에 '즉각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소방공무원이 792명(2.5%)이었음. 인원만 놓고 보면, 지난해 357명(1.4%)의 2배 이상임.

◆ 조선업 상생협약체 발족

-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조선업 상생협약체 발족식을 열었음.
- 상생협약체는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협약체에는 조선 5사 원청·협력사와 전문가, 중앙정부·지방정부 인사 등 24명으로 구성됐음.
- 협약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음.
- 협약체는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운영하며 2023년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실천협약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같은 장단기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 ‘서울 개인택시 부제’ 45년 만에 폐지

- 11월 8일 서울시는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으로 현재 하루 2만 대 수준인 심야 택시를 거리 두기 이전 수준인 2만 7,000대 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1978년부터 시행해 온 개인택시의 가·나·다 3부제, 9·라 특별 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대신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야간조(월~금)를 나눠 일주일에 이틀은 야간에 운행하도록 했음. 서울시는 심야 운행 개인택시가 약 5,000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 12월 1일부터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이 늘어남.
- 할증료율도 20% 고정에서 오후 11시~오전 2시 시간대는 최대 40%로 높아짐.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심야에 6시간을 근무한 택시기사의 소득은 월 55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본요금도 내년 2월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거리는 1.6km로 400m 줄어듦.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심야 시간대 운행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264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
- 법인택시도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재편성해 심야 운행을 늘리기로 했음. 올빼미 버스는 12월 1일부터 3개 노선(N32·N34·N72)을 연장하는 등 37대를 증차하기로 했음.

◆ 중국동포·고려인 등 5성급 호텔과 가사도우미로 취업 가능

- 11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한다고 밝혔음.
- H-2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이 방문 취업으로 받게 됨.
- 지금까지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 일부 업종만 방문취업 동포를 채용할 수 있었음. 2023년부터는 정보·교육서비스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됨. 제외 업종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임.
-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 서비스업도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게 됨.
- 고용이 허용되는 호텔업의 범위도 기존 1~3성급 관광호텔업에서 4~5성급과 콘도로 확대됨.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음. 기존에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주의 알선 등을 통해 가사노동자로만 일했는데, 이제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게 되었음.

◆ 플랫폼 · 특고 · 프리랜서 700만 명

- 10월 16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플랫폼 · 특고 · 프리랜서 비임금 노동자는 2016년 515만 명에서 2020년 704만 명으로 189만 명 증가했음.
- 최근 5년 새 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를 한 비임금 노동자는 30세 미만 청년층이 2016년 110만 명에서 2020년 164만 3천 명으로 54만 3천 명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음.
- 다음으로는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가 같은 기간 52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약 45만 명 증가했고 50대(44만 명), 40대(24만 명), 30대(20만 명)가 뒤를 이었음.
- 성별로 보면, 2020년 비임금 노동자 가운데 53.4%(376만 명)가 여성이었음. 이는 2016년보다 75만 명이 늘었음. 남성은 326만 명(46.3%)이었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형태를 보면 노무(인적용역)를 제공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함.
- 학원강사 · 저술가 등 프리랜서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이 해당됨.

◆ 필수노동자 3명 중 1명은 고령층

- 11월 2일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1,2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 3명 중 1명은 50대이고, 업종별 · 성별 분절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2.34%로 가장 많았음. 40대(25.22%)와 30대(18.84%)가 뒤를 이었음.
- 분야별 평균연령은 돌봄 51.4세, 청소환경미화가 53.9세로 전체 평균연령 46.9세보다 높았음. 보건의료는 38.5세로 가장 낮았음.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이 39.72%인 반면 계약직 36.73%, 무기계약직 11.25% 등 나머지는 비정규직이었음.
- 정규직 비중은 보건의료가 68.06%로 가장 높았음. 반면 돌봄은 36.49%, 운송은 23.34%, 청소환경미화는 29%에 그쳤음. 무기계약직 비중은 청소환경미화(28.25%)가 가장 높았고, 계약직은 돌봄(53.24%)이 가장 높았음.
- 필수업무 종사자 월평균 소득은 272만 원이었음. 운송이 350만 원으로 가장 높고, 보건의

- 료 303만 원, 청소환경미화 283만 원, 돌봄 176만 원 순이었음.
- 코로나19 시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14.96%가 소득감소를 겪었음. 돌봄(21.35%)과 운송(27.53%)에서 소득감소 경험이 많았음.

〈표 7〉 부산지역 필수업무종사자 고용형태별 비교

(단위 : %)

	업종			
	돌봄	보건 의료	운송	청소 · 환경 · 미화
정규직	36.49	68.06	23.34	29.00
무기계약직	6.76	6.13	6.62	28.25
계약직	53.24	23.55	26.13	40.52
일용직	3.24	0.00	16.03	0.00
위수탁계약	0.00	0.00	25.78	0.37
기타	0.27	2.26	2.09	1.86

자료 : 부산노동권익센터.

◆ 조선 · 미래차 기업 95% “생산인력 부족”

- 11월 8일 한국경총은 미래 신주력산업 기업 415곳을 대상으로 인력수급 상황 체감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인력부족 체감도는 △조선(52.2%) △반도체(45.0%) △미래차(43.0%) △바이오 · 헬스(29.0%) 순으로 높았음. 4개 업종 모두 생산직무 인력부족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 생산직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조선은 96.6%, 미래차는 95.4%, 반도체는 65.4%, 바이오 · 헬스는 55.2%였음.
- 이번 조사에서 조선 88.3%, 미래차 60.5%, 반도체 46.7%가 5년 후에도 생산직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했음.
- 인력부족 이유로 조선(38.3%) · 반도체(46.7%) 기업은 “고용 이후 잦은 이직 · 퇴직”이라고 답했음. 미래차와 바이오 · 헬스 기업은 “경력직 지원자 부족”이 각각 44.2%, 55.2%로 비중이 높았음.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조선, 반도체, 바이오 · 헬스는 인력채용 비용 지원을, 미래차는 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음.

◆ 직장인 10명 중 9명 “원청 갑질 심각”

- 11월 14일 직장갑질 119는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자의 90.8%는 원청회사의 하청회사에 대한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음. 갑질의 종류로는 “정당한 이유 없는 납품단가 인하”와 “임금 차별”이 각각 21.7%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 휴가·복지시설 이용 등 노동조건 차별(18.5%), 위험한 업무 전가(16.3%),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 자료 제공 요구(10.9%), 직장 내 괴롭힘(8.7%)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 10명 중 8명(78.7%)은 원청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했음. 갑질 종류로 “임금 차별”이 62.5%로 가장 많았음. “위험하거나 힘든 노동 전가”(56.3%)나 “휴가일수 차별”(52.3%), “명절선물 차별”(50.6%)도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경험·목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외에도 직장인 다수는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모르고 있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은 동의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 노란봉투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70.3%는 “모른다”고 답했음.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회사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3조 개정에는 각각 응답자의 89.4%, 79%가 “동의한다”고 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